

## 충남의 농업 · 농업인, 여건변화에 주목하라.

### 농업경영과 소비패턴의 양극화 심화 전망

현재의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대농(대규모 농가)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생산-대량유통체계와 중·소농(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하는 다품종·소량생산-틈새시장 유통체계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선, 대농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 관행농과 첨단기술 농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글로벌 농업회사, 기업농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유통은 주로 대규모 수직계열화(RPC, APC, LPC, GPC 등) 및 광역브랜드 기반의 대량유통 체계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시장과 수출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한편, 중·소농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지역순환형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지향적 농업으로 재편될 것이며, 경영체는 주로 전업농 보다는 겸업농이 중심이 되고, 이들이 농어업6차산업화 등을 주도하는 핵심주체가 될 것이다. 유통은 주로 중·소규모 경제공동체(작목반, 농어업법인 등)와 농가브랜드 기반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친환경 및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소비패턴에 있어서는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소비성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등의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격과 양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중심의 소비패턴은 상류층과 함께 중산층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소비자 지향 유통 체계로의 전환

미래 건강·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식품소비 패턴도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함께 GAP, HACCP 등이 확대 정착될 것이다. 현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는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 지향의 유통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농교류, 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대·정착될 것이며, 주로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유통이 로컬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농업·농촌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변화 및 '신농업인'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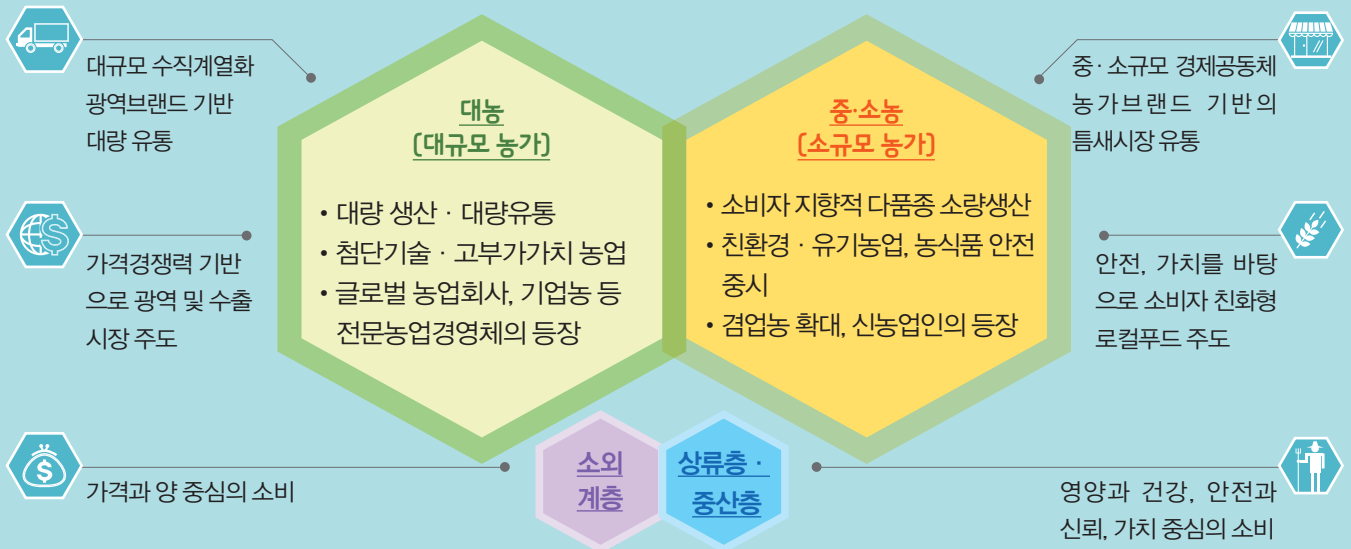
농업·농촌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농업인만의 단순한 경쟁력 강화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고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을 통하여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기존의 수동적이고 시장경쟁의 수혜자의 태도에서 먹을거리에 대해 직접적·능동적(소비자협동조합 등) 태도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농정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향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의 도래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와 함께 단순한 농업생산의 범주를 벗어나 귀농·귀촌 컨설턴트, 도시 농업 컨설턴트, 농촌유학 프로그램 매니저, 지역문화 해설사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신농업인'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은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에도 상당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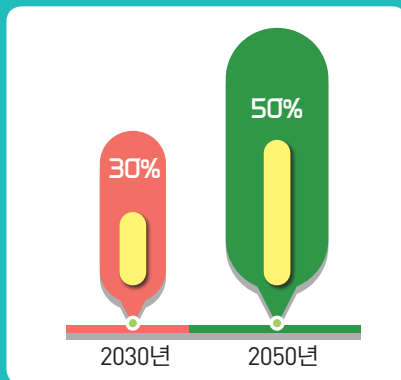
저자 \_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 미래 농업과 농업인의 여건 변화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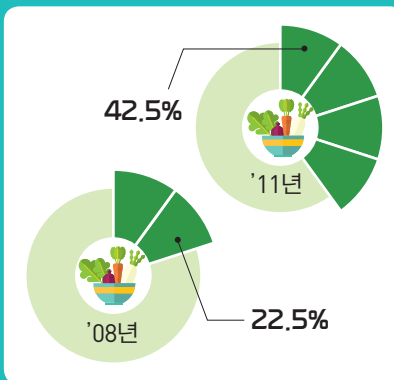
## 농업경영과 소비패턴의 두 갈래 길



###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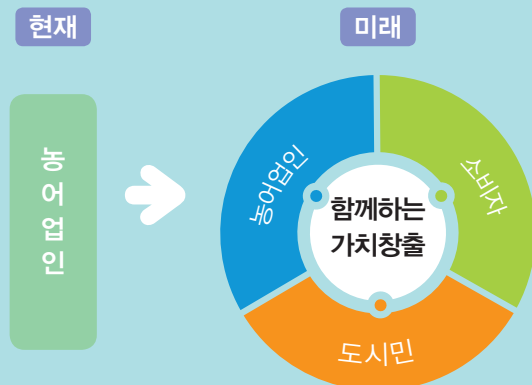
### 농식품의 안전성 중요도 인식



### 소비자 지향 유통체계로의 변화



## 농정주체의 확대



## 신농업인의 등장

